

상식과 원칙에 따른 목장관리가 기본이다!



성경일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

닭에서의 AI에 이어 낙농/한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업계는 물론 나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구제역 백신의 항체형성률이 소가 돼지보다 훨씬 높아 모든 두수를 백신접종하게 되어 있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이번처럼 대량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구제역이 대량 발생한 것일까? 현장의 낙농가나 관리책임이 있는 기관 모두 설마하고 구제역 방역 지침(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한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아무리 안티축산 대책이나,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과 축산물 바로 알리기 사업을 통하여 이미지 개선 노력을 한들 이번처럼 대량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이제 낙농은 더 이상 존재가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질병이 발생하면 호들갑을 떨다가 잠잠해지면 또다시 대충 대충 관리하는 안이한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각자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 줄 때이다.

목장주의 마음가짐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소비자들에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구제역처럼 전염성 질병의 경우는 전국을 공포의 분위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때 반드시 거론되는 것이 우사가 더럽고 비좁아 사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 더 쉽다는 것이다. 친환경 사육기술이나 자재 사용, 환경부하 저감, 환경미화나 경관보존 등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축산에서 이러한 환경문제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지역전체로서 환경보전형의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단순히 축산물/농산물 생산만이 아니라 도시·소비자와의 협력과 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친환경축산의 세심한 접근이 중요한 이유다. 그 시작이 목장주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목장관리는 목장주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육환경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이미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의 실천농가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목장관리의 실천

목장관리는 사료포의 토양부터 우유생산과 경영까지 아주 광범위한 분야를 알아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특히 전염성 가축질병에 대한 관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구석구석 소홀히 할 수 없다.

목장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무엇보다도 목장을 방문했을 때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장 전체적인 분위기와 목장주의 마인드가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목장에서 낙농가의 마음가짐만으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목장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검토해 보자.





우사주변

목장을 방문하면 먼저 우사 주변 전체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는 농기구·농기계류, 사료·비료 포대, 각종 쓰레기 등 정리되어 있지 않은 우사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우사내

우사는 사료조와 배출되는 분뇨로 인한 냄새의 근거지로 청결유지를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사의 높은습도로 발생하는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우사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환기와 배기, 채광 등 시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우사의 거미줄이

나 먼지와 사료조나 바닥의 정기적 청소 그리고 밝은 색채의 색칠 등은 낙농가의 마음자세만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깨끗한목장기꾸기운동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다. 아직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우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사료조 위를 똥장화 신은 채로 걸어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소가 마시는 음수장은 며칠씩 청소를 하지 않아 이끼가 끼어 있거나 음수장 주위가 습해서 부패 냄새가 나는 경우를 아직도 쉽게 발견하기도 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소도 내 식구라는 생각 하나만 바꾸면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착유실

우유의 품질과 위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착유실의 산뜻한 색채

와 더불어 거미줄, 배관 파이프 위의 먼지, 벽에 묻어 있는 똥 자국 제거만으로도 목장관리는 합격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제역 등으로 마스크가 TV에 낙농가를 비추 줄 때 항상 걱정되는 것이 똥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젖소이다. 아무리 우유의 세균수나 체세포수 등이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고 홍보를 해도 더러운 젖소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퇴비장

우사 내에서 배출된 분미는 퇴비장의 관리는 친환경축산의 핵심이다.

배출된 분을 충분히 부숙시키는 일은 낙농가에게 기본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부숙과정에서 생기는 수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턱을 세우거나 주위에 풀밭을 만들어 완충역할을 하게 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지 않는가! 생산된 양질의 유기질비료나 슬러리는 자원순환을 기본으로 하여 자가 사료포에 환원하거나 지역 경종농가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여성(주부) 낙농인의 역할을 기대한다. 낙농경영에서 여성의 장래에 대한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낙농과 가사(육아) 양쪽 모두의 노동을 하는 여성낙농인의 생각에 따라 낙농경영은 아주 변동이 심하다. 여성낙농인이 남편의 낙농경영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정신적 삶을 중시하여 여유 있는 생활을 할 것인가에 따라 낙농경영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낙농인이 낙농경영에 관여하여 세심한 부분의 목장관리를 담당하여 꼼꼼히 체크한다면 이번처럼 어처구니 없는 구제역 사태나 축산환경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모두 다시 초심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낙농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지역산업의 핵심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이 요구된다. 따라서 낙농가와 관리감독기관은 보다 체계적인 목장관리 지침을 구축하여 한순간도 방심 없는 세심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